

서평

「대동지지」¹⁾(김정호, 발행년 불명, 이상태·고혜령·김용곤·이영춘·김현영·박한남·고성훈·류주희 역²⁾, 2023)

최원희*

I. 서론

한국의 전통지리학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지리학자 몇몇을 꼽을 때 대개의 경우 그 중 한 사람으로 고산자 김정호(古山子 金正浩, 1804~1866 추정³⁾)를 지목할 것이고, 그러한 지목의 주된 근거로 김정호가 지도(地圖) 제작과 지지(地志)⁴⁾ 편찬 모두에서 큰 업적을 남겼다는 점을 제시할 것이다.

한국의 전통지리학은 대체로 조선시대에 실용적 지리학의 차원에서 지도 제작 및 지지 편찬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는데(양보경, 2011:290~292), 김정호는 지도와 지지가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인식하고 실천한 대표적 지리학자였다(양보경, 2011:302). 이에 따라, 김정호의 주요 저작(著作)은 대체로 지도 제작과 지지 편찬을 병행(併行)하는 형태를 취했다(노도양, 1980:98-99).

김정호는 생전에 3대 지도와 5종 지리지를 남겼는데(이상태, 2021:219), 3대 지도에는 <청구도(靑邱圖)>(1834~1849)·<동여도(東輿圖)>(1856~1859)·<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1861~1864)가 포함되며(이상태, 2021:219-298), 그리고 5종 지리지에는 『동여편고(東輿便攷)』(1820~1834)·『동여도지(東輿圖志)』¹⁾(1834)·『동여도지』²⁾(1850)·『여도비지(輿圖備志)』(1851~1856)·『대동지지(大東地志)』(1868)가 포함된다(이상태, 2021:135-192; 김정호, 발행년 불명, 이상태 등 역, 2023:제1책 뒤표지).

김정호가 저술한 5종 지리지 중에서 특히, 『동여도지』·『여도비지』·『대동지지』는 김정호의 '3대 지지'로 지칭되

는데(양보경, 2011:302-303), 이 중에서도 『대동지지』는 김정호가 생애 마지막 해이던 1868년까지 편찬하던 것으로, 조선 후기의 대표적 전국지리지로 간주되는 것이다(김정호, 발행년 불명, 이상태 등 역, 2023:제1책 역자서문6-7). 조선시대에 편찬된 대표적 전국지리지로는 『대동지지』 이외에도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1530)·『여지도서(輿地圖書)』(1757~1765) 등이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은 『동국여지승람』(1481: 성종 12)을 세 차례 수교(手校)·증수(增修)하여 1530년(중종 25)에 55권 25책으로 완성한 조선 전기(前期)의 대표적인 관찬지리지(官撰地理書)로, 기본적으로는 정도, 한성부·개성부 및 8도의 지리지를 집성(集成)한 것이며, 세부적으로는 서울 및 지방 사회의 여러 방면에 걸친 종합적 성격의 백과전서식 형식(百科全書式 形式)을 취하고, 팔도총도(八道總圖: 동람도(東覽圖)) 및 도별지도(道別地圖)를 참고자료로 수록하여 '지도와 결합된 지리지'라는 형식을 취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지리지 내용의 공간적 파악과 정확한 인식을 제공하려 한 점에서 한 단계 진보한 지리지로 간주된다.⁵⁾

위와 같은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조선 전기 지리지의 집성편(集成篇)으로서 이후 조선 지리지의 규범이 되어 조선 후기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양보경, 2011:295). 이와 관련해 『신증동국여지승람』을 개수(改修)·속성(續成)한 것이 『여지도서』이고,⁶⁾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편찬한 것이 『대동지지』라는 점⁷⁾(김정호, 발행년 불명, 이상태 등 역, 2023:제1책 역자서문7·

*공주대학교 지리교육과 명예교수(Emeritus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Kongju National University, cwh@kongju.ac.kr)

뒤표지)을 감안하면, 『여지도서』·『대동지지』는 조선시대 전국지리지의 전형(典型)인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따른 것으로 볼 수 있고,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여지도서』·『대동지지』의 원형적 모체(原形的 母體)로 간주할 수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여지도서』·『대동지지』와 같은 조선시대 대표적 전국지리지 중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일찍이 1969~1970년에, 그리고 『여지도서』는 2009년에 각각 국문(國文)으로 완역(完譯)된 바 있으나, 『대동지지』는 200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도 부분적 국문 번역만 이루어진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2023년에 이상태 등에 의해서 현존 『대동지지』 원전(原典) 총 30권 중 ‘경도 및 8도’에 관한 총 24권이 국문으로 번역되어 ‘대동지지’라는 제하의 번역서로 간행되었는데, 이러한 『대동지지』 번역서의 간행으로 조선 후기 전국의 지리적 상황, 사회·문화적 사정 등을 연구하는 데 획기적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 필자는 『대동지지』 번역서의 간행에 관해 지리학계에 소상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서평 작성에 임하게 되었다. 본 서평에서는 우선 『대동지지』 원전의 서지·내용·의의를 개관하고, 이어서 『대동지지』 번역서의 서지·내용·의의를 기술하고자 한다.

서평 작성 과정에서 내용 기술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대동지지』의 원본(原本)·영인본(影印本)·필사본(筆寫本)·활자본(活字本) 등의 원전은 『대동지지』로, 그리고 『대동지지』 번역서는 ‘역서 『대동지지』’로 각각 칭하고자 한다.

II. 『대동지지』의 서지, 내용 및 의의

1. 『대동지지』의 서지

『대동지지』의 소장처로는 주요 관련 자료에서 몇 곳이 언급되고 있다. 우선, 역서 『대동지지』(김정호, 발행년 불명, 이상태 등 역, 2023:제1책 역서서지2·역자서문6)에는 “(역서 『대동지지』에 수록된) 영인본의 출처는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⁸⁾에 있다. … 현재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대동지지』 원본은 … 고산자 김정호의 육필본(肉筆本)이다”라고 기술되어 있고, 『대동지지: 상』(충남대학교 부설 백제연구소, 1982a:1·3)에는

“본서는 서울대학교 도서관이 소장한 고산자 김정호의 『대동지지』 사본(寫本)을 저본(底本)으로 한 활자본이다. 그러나 상기 사본에서 미흡한 점은 고려대학교 도서관이 소장한 『대동지지』의 영인본(한양대학교 부설 국학연구원, 1974)과 대조하여 보완하였고…”라고 기술되어 있다. 또한, 국가전자도서관 홈페이지(<https://www.dlibrary.go.kr>)에는 “『대동지지』 15책은 고려대학교 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에만 소장되어 있는데, 전자는 김정호의 친필본(親筆本)이고, 후자는 일제강점기의 필사본으로 보인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대동지지』의 편찬 완료 연대는 지금까지 1864년(고종 1)으로 와전되어 있다. 『동여도지』 서문에 의하면, 김정호는 1861년(철종 12) 가을에 『동여도지』를 끝낸 것으로 밝히고 있으므로 그는 1862년(철종 13) 『대동지지』 편찬에 착수하여 1868년(고종 5) 죽는 날까지 이 책의 편찬을 계속하다가 평안도편(平安道篇)을 다 끝내지 못하고 죽었다. 부연하면, 『대동지지』 ‘경기도 삭령군(朔寧郡) 연혁조’의 세주(細注)를 보면, “당저(當宇) 5년에 정기덕(鄭基德)이 역모(逆謀)로 주살(誅殺)되어 현(縣)으로 강등되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여기서 ‘당저 5년’은 고종 5년이고, 고종 5년은 1868년이므로 적어도 김정호는 1868년까지 생존하였고, 그때까지 『대동지지』를 편찬했다고 볼 수 있다(이상태, 2021:184-186; 김정호, 발행년 불명, 이상태 등 역, 2023:제1책 역자서문6). 이와 관련해 양보경(2011:302)은 “『대동지지』는 1861년(철종 12) <대동여지도> 완성 후 편찬에 착수하여 1866년(고종 3)까지 추보(追補)하다가 미완으로 끝난 책이라는 점에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김정호의 주요 저작은 대체로 지도 제작을 선행하고, 제작된 지도에 기반해서 지지를 편찬하는 형태였다.

위와 관련하여, 김정호는 <청구도>의 범례에서 “지지는 지도에서 모두 나타내지 못한 것을 다하고자 함이니, 제읍(諸邑)으로 하여금 요목(要目) 사항에 따라 여기에 맞도록 하되, 이 방식에 어긋나지 않도록 할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지지와 지도가 병행하도록 할 것이다”라고 기술하고, 이어서 같은 범례에서 지지 편찬 요목으로 읍의 건치연혁(建置沿革), 고읍(古邑), 방면(坊面), 산수(山水) 등 38개를 제시하고 있다. 『대동지지』 편찬도 지도 작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노도양, 1980:98-99), 『대동지지』는 <대동여지도>를 제작한 후 <대동여지도>에 맞춘 지리지이다(김정호, 발행년 불명, 이상태 등 역, 2023:

제1책 뒤표지).

또한, 김정호의 주요 저작은 대체로 지도와 지지를 모두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전작(前作)들을 종합하여 신작(新作)을 시도하는 형태였다.

위와 관련하여, 김정호는 <청구도>를 네 차례, 그리고 <동여도>를 두 차례 각각 제작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14첩 및 18첩의 ‘필사본 <대동여지도>’를 제작하였고, 이를 1861년에 <대동여지도>로 목판판각하였다. 그 후, 김정호는 내용을 계속 세보(細補)하여 1864년에 ‘갑자본 <대동여지도>’를 완성하여 판각하였다(이상태, 2021:298). 김정호가 편찬한 지지들도 『동여도지』1을 정리하여 편찬한 것이 『동여도지』2이고, 『동여도지』2를 거의 그대로 정리편찬한 것이 『여도비지』이다. 『여도비지』는 최성환(崔瑔煥, 1813~1891)과 함께 편찬하였다. 이후, 김정호는 『동여도지』1, 『동여도지』2 및 『여도비지』를 종합하여 『대동지지』를 편찬하였는데(김정호, 발행년 불명, 이상태 등 역, 2023:제1책 역자서문5), 상론하면 『대동지지』는 『동여도지』를 근간으로 삼고 『여도비지』를 참고로 삼아 보완한 지지이다(이상태, 2021:186).

『동여도지』에도 평안도편이 결본인 것처럼 『대동지지』에도 평안도편의 일부가 결본이며, 또 편찬된 평안도편의 일부도 김정호의 친필본이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깨끗이 정서된 지지이다. 언제 누군가에 의해 첨부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 부연하면, 고려대학교에 소장된 원본에는 권 22까지는 ‘고산자 편(古山子 編)’이라고 편찬자를 밝히고 있지만, 권 23과 권 24의 평안도편에는 편찬자의 표시가 없다. 권 23과 권 24의 평안도의 19개 군현은 고산자가 편찬하지 못한 군현들이다(김정호, 발행년 불명, 이상태 등 역, 2023:제1책 역자서문6-7).

『대동지지』는 본래 총 32권 15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권 25 ‘산수고(山水考)’와 권 26 ‘변방고(邊防考)’는 낙질(落帙)이어서 현재 전하는 것은 총 30권 15책이다(한양대학교 부설 국학연구원, 1976:IX; 충남대학교 부설 백제연구소, 1982a:3; 양보경, 2011:303). 『대동지지』 15책은 『동여도지』 22책과 『여도비지』 20책보다는 분량이 다소 줄어든 것이다(김정호, 발행년 불명, 이상태 등 역, 2023:제1책 뒤표지).

2. 『대동지지』의 내용

『대동지지』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편찬하였으며, 19세기 조선 전국의 군현(郡縣) 사항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귀중한 지리서이다(김정호, 발행년 불명, 이상태 등 역, 2023:제1책 역자서문7·뒤표지).

『대동지지』는 권 1 ‘경도 한성부(京都 漢城府)’의 내용 제시에 앞서 총목(總目)·문목(門目)·인용서목(引用書目)을 제시하고 있는데, 총목은 권 1 ‘경도 한성부’, 권 2 ‘경기도 4도(京畿道 四都)’ 등 권 1~32의 목록이고, 문목은 연혁·고읍·방면·산수 등 22요목이고, 그리고 인용서목은 『개국방략(開國方略)』(건륭 38년 이치 찬(乾隆 三十八年 李勅 撰))·『삼국사(三國史)』(고려 김부식 찬(高麗 金富弼 撰)) 등 조선 서적 43종 및 『사기(史記)』(한 사마천 찬(漢 司馬遷 撰))·『후한서(後漢書)』(송 범엽 찬(宋 范曄 撰)) 등 중국 서적 22종의 서지목록이다(한양대학교 부설 국학연구원, 1974:1-6; 충남대학교 부설 백제연구소, 1982a:5-10; 김정호, 발행년 불명, 이상태 등 역, 2023:제1책 원문1-7).

『대동지지』의 권별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한양대학교 부설 국학연구원, 1974:1976; 충남대학교 부설 백제연구소, 1982a:1982b; 양보경, 2011:303; 김정호, 발행년 불명, 이상태 등 역, 2023:제1~8책).

권 1은 ‘경도편(京都篇)’인데, 경도의 국조기년(國朝紀年)·도성(都城)·궁궐(宮闕)·제궁(諸宮)·단유(壇壝)·묘전(廟殿)·묘정배향제신(廟庭配享諸臣)·진전(眞殿)·궁묘(宮廟)·동반부서(東班府署)·서반부서(西班府署)·한성부에 관해서 기술하고 있다.

권 2~24는 ‘8도의 주현편(州縣篇)’인데, 권 2~4의 경우 경기도 4도(수원부(水原府)·광주부(廣州府)·개성부(開城府)·강화부(江華府))의 연혁·고읍·방면·산수·형승(形勝)·성지(城池)·영아(營衛)·봉수(烽燧)·창고(倉庫)·역참(驛站)·진도(津渡)·교량(橋梁)·목장(牧場)·토산(土產)·장시(場市)·궁실(宮室)·누정(樓亭)·묘전(廟殿)·능원(陵園)·사원(祠院)·전고(典故) 등에 관해, 그리고 부록으로 강역(疆域)·전민(田民)·역참·봉수·총수(總數)에 관해 각각 기술하고 있다. 또한, 권 5~24의 경우 충청도(忠淸道)·경상도(慶尙道)·전라도(全羅道)·강원도(江原道)·황해도(黃海道)·함경도(咸鏡道)·평안도에 속한 읍(府)·목(牧)·군·현의 연혁·방면·산수·형승·성지·영아·진보(鎭堡)·봉수·창고·목장·진도·토산·장시·누정·전고 등에 관해, 그리고 부록으로 강역·전민·역참·봉수·총수·사원에 관해 각각 기술하고 있다.

권 2~24에서 각 도의 도·읍·부록의 수를 보면, 권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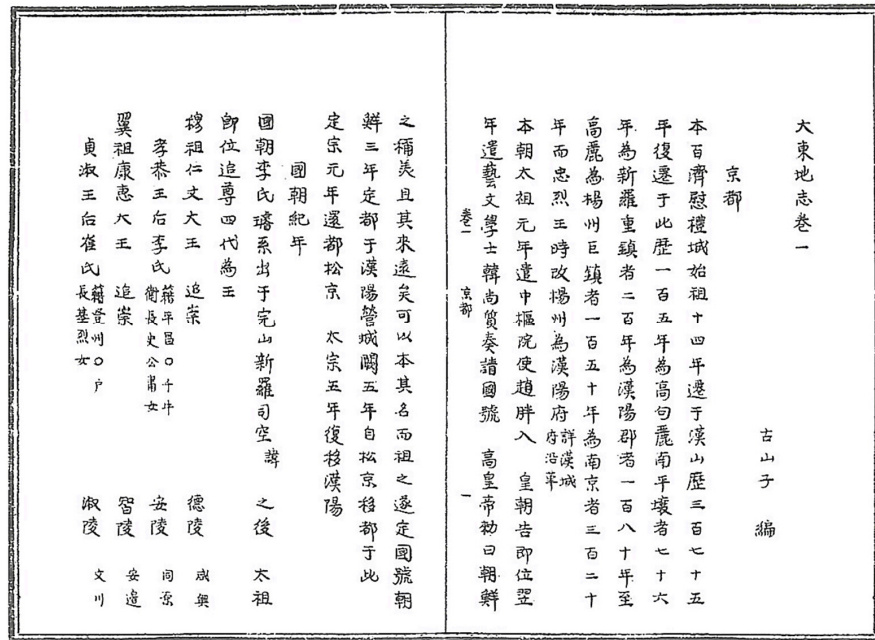


그림 1. 『대동지지』 권 1 ‘경도’의 첫째쪽 부분

출처 : 김정호, 발행년 불명, 이상태 등 역, 2023:제1책 원문9.

* 우측의 ‘대동지지권일(大東地志卷一)’과 ‘경도(京都)’ 표기 사이 아래에 ‘고산자 편(古山子 編)’이라고 명기되어 있는데, 이는 고산자가 편찬자임을 의미한다(김정호, 발행년 불명, 이상태 등 역, 2023:제1책 역사서문6-7).

‘경기도’는 4도·33읍·5부록, 권 5~6 ‘충청도’는 43읍·5부록, 권 7~10 ‘경상도’는 70읍·5부록, 권 11~14 ‘전라도’는 56읍·5부록, 권 15~16 ‘강원도’는 26읍·3부록, 권 17~18 ‘황해도’는 23읍·3부록, 권 19~20 ‘함경도’는 25읍·5부록, 그리고 권 21~24 ‘평안도’는 41읍으로 각각 나타나고 있다.

권 25 ‘산수고’ 및 권 26 ‘변방고’는 낱질이어서 항목 자체를 알 수 없는데, 산수고는 자연적인 산천·경계(境界)에 관한 것이고, 변방고는 인문현상·국경방어지역에 관한 것이다.

권 27~28은 ‘정리고(程里考)’로 26항목을 제시하고 있는데, 경도를 중심으로 전국으로 연결된 도로망·역참·해로(海路) 등에 관한 것이다. 권 27의 경우 궐문분로(闕門分路)·성문분로(城門分路)·총목(總目)·정리첩람(程里捷覽) 등 15항목을, 그리고 권 28의 경우 발참(撥站)·연변해로(沿邊海路)·제주해로(濟州海路)·화외해로(化外海路)·역대사로(歷代使路) 등 11항목을 기술하고 있다.

권 29~32는 ‘역대지(歷代志: 방여총지(方輿總志))’로 16항목을 제시하고 있는데, 역대의 모든 역사 내용을 총체

적으로 기록한 부분이다. 구체적으로 권 29는 단군조선(檀君朝鮮)·기자조선(箕子朝鮮)·위씨조선(衛氏朝鮮)·한사군(漢四郡)·한이부(漢二府)·요변제국(遼藩諸國)·삼한제국(三韓諸國)·신라소병제국(新羅所並諸國)·지분미상제국(地分未詳諸國)에 관해, 권 30은 신라(新羅)에 관해, 권 31은 가야(加耶)·백제(百濟)·고구려(高句麗)·발해국(渤海國)·후삼한(後三韓)에 관해, 그리고 권 32는 고려에 관해 각각 기술하고 있다. 특히, 권 30 및 32에는 역사지도(歷史地圖)가 수록되어 있는데, 권 30에는 신라의 구주총도(九州總圖) 및 그의 개별도(個別圖)가, 그리고 권 32에는 고려의 오도양계전도(五道兩界全圖) 및 그의 개별도가 각각 수록되어 있다.

『대동지지』의 권별 내용을 체제적 특징(體制的 特徵)을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대동지지』의 체제는 이전의 전국지리지나 읍지에서 예를 찾기 어려운 독특한 구성 방식으로서 각 지역 단위로 지역의 성격을 기술하는 ‘지역별 지지’와 강역·도로·국방·산천 등 자연환경의 ‘주제별 지리학’을 결합시킨 형태로 주목된다. 이는 조선 전기의 전국지리지 편찬과 조선 후기의 읍지 편찬의 맥락을

표 1. 『대동지지』의 권별 내용

권별	내용
-	총목, 문목, 인용서목
1	경도(국조기년·도성·궁궐·제궁·단유·묘전·묘정배향제신·진전·궁묘·동반부서·서반부서·한성부)
2	경기도 4도(수원부·광주부·개성부·강화부)
3~4	권 3 경기도 13읍, 권 4 경기도 20읍 및 부록(강역·전민·역참·봉수·총수)
5~6	권 5 충청도 22읍, 권 6 충청도 21읍 및 부록(강역·전민·역참·봉수·총수)
7~10	권 7 경상도 15읍, 권 8 경상도 25읍, 권 9 경상도 22읍, 권 10 경상도 8읍 및 부록(강역·전민·역참·봉수·총수)
11~14	권 11 전라도 18읍, 권 12 전라도 13읍, 권 13 전라도 12읍, 권 14 전라도 13읍 및 부록(강역·전민·역참·봉수·총수)
15~16	권 15 강원도 17읍, 권 16 강원도 9읍 및 부록(봉수·총수·사원)
17~18	권 17 황해도 10읍, 권 18 황해도 13읍 및 부록(강역·전민·역참)
19~20	권 19 함경도 15읍, 권 20 함경도 10읍 및 부록(강역·전민·역참·봉수·총수)
21~24	권 21 평안도 10읍, 권 22 평안도 12읍, 권 23 평안도 10읍, 권 24 평안도 9읍
25~26	권 25 산수고(낙질)/ 권 26 변방고(낙질)
27~28	권 27 정리고(결문분로·성문분로·총목·정리첩람 등 15항목), 권 28 정리고(발참·연변해로·제주해로·화외해로·역대사로 등 11항목)
29~32	권 29 역대지 1(단군조선·기자조선·위씨조선·한사군·한이부·요변제국 등 9항목), 권 30 역대지 2(신라), 권 31 역대지 3(가야·백제·고구려·발해국·후삼한), 권 32 역대지 4(고려)

출처 : 한양대학교 부설 국학연구원, 1974; 1976; 충남대학교 부설 백제연구소, 1982a; 1982b; 양보경, 2011:303; 김정호, 발행년 불명, 이상태 등 역, 2023:제1~8책.

계승한 후 조선 후기에 새로 꽃을 피운 실학적 지리학의 연구성과를 지지에 종합하여 집대성하려는 시도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현대지리학적인 입장으로 해석한다면, 지역지리학의 연구방법과 계통지리학의 연구방법을 결합하여 완벽한 지지를 만들어 우리 국토를 보다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지지의 체제를 『대동지지』 편찬 단계에서 확립하였다고 할 수 있다(양보경, 2011:302-303).

3. 『대동지지』의 의의

『대동지지』는 성숙된 지리학자로서 김정호 일생의 집념과 노력이 결집된 지지로 그의 자세와 의식이 투영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책의 특징과 이 책에 반영된 김정호 사상의 단편들을 추출해 봄으로써 『대동지지』의 의의를 대표할 수 있을 것인데, 그의 대강을 보면, 다음과 같다(양보경, 2011:304-305).

첫째, 『대동지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내용이 상세할 뿐만 아니라 저자 자신의 독자적인 견해가 정리되어 있다는 점이다. 둘째, 종합적 시각으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지지를 편찬한 점이다. 셋째, 김정호의 지지는 과학적 사고와 철저한 사실성에 기초하고 있으며, 특히 역사지

리학적인 위치 비정, 지명 변천, 산천의 맥세 파악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넷째, 『대동지지』에는 김정호의 자주사상이 발현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다섯째, 『대동지지』는 물론 그의 지지들은 지리지 본연의 자세에 무엇보다 충실하여, 이들 지지를 통해 19세기 조선의 국토상, 즉 각 지역의 모습을 재현하고 복원할 수 있는 풍부한 자료집이다.

III. 역사 「대동지지」의 서지, 내용 및 의의

1. 역사 「대동지지」의 서지

역서 『대동지지』의 저자는 이상태⁹⁾ 등의 8명인데, 이들은 과거에 국사편찬위원회(國史編纂委員會)에서 연구편찬실장·편사부장·연구편찬정보화실장·역사진흥실장 등의 직책을 수행하면서 같이 근무한 바가 있다(김정호, 발행년 불명, 이상태 등 역, 2023:앞표지이면·역문7).

역서 『대동지지』의 판수(版數), 발행일 및 출판사는 각각 순서대로 초판 1쇄, 2023년 7월 27일 및 서울 소재 경인문화사(景仁文化社)로 되어 있고(김정호, 발행년 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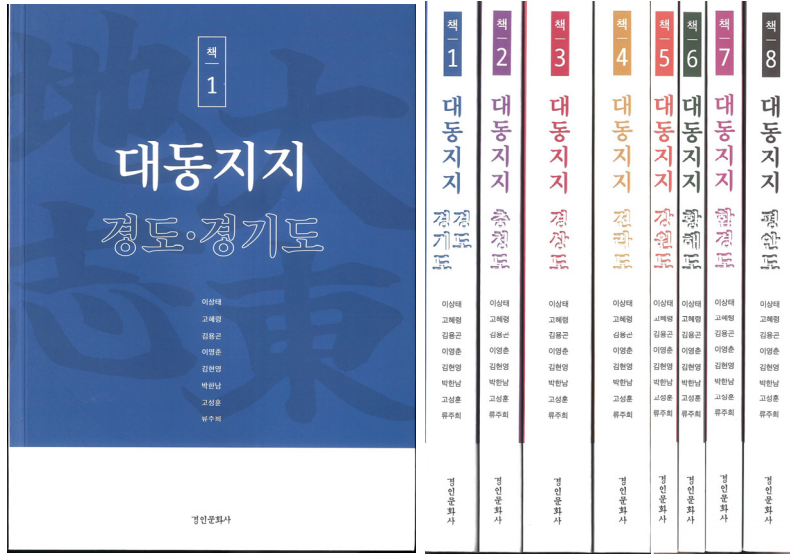


그림 2. 역사 「대동지지」 '제1책'의 앞표지(좌) 및 '제1~8책'의 책등(우)

출처 : (좌)김정호, 발행년 불명, 이상태 등 역, 2023:제1책; (우)김정호, 발행년 불명, 이상태 등 역, 2023:제1~8책.

명, 이상태 등 역, 2023:제1책 역자서문2), 그리고 책수(冊數), 쪽수 및 판형(版型)은 각각 순서대로 총 8책, 총 2,694쪽 및 46배판(B5 사이즈: 가로 188mm, 세로 257mm)으로 되어 있다.

2. 역사 「대동지지」의 내용

역서 「대동지지」 총 8책의 각 책에는 『대동지지』의 권별 역문(譯文)·원문(原文)이 각각 순서대로 앞뒤로 수

록되어 있는데, 책 1에는 경도(권 1)·경기도(권 2~4), 책 2에는 충청도(권 5~6), 책 3에는 경상도(권 7~10), 책 4에는 전라도(권 11~14), 책 5에는 강원도(권 15~16), 책 6에는 황해도(권 17~18), 책 7에는 함경도(권 19~20), 그리고 책 8에는 평안도(권 21~24)의 역문·원문이 각각 수록되어 있다. 특히, 책 1에는 역문에 앞서 역사 「대동지지」의 서문·목차, 그리고 원문에 앞서 『대동지지』의 총목·문목·인용서목이 각각 수록되어 있다.

역서 「대동지지」에는 낙질 상태의 산수고(권 25)·변방

표 2. 역사 「대동지지」의 책(도·도)별 쪽수 구성

책	도·도	서지·내표지·목차	역문	원문	계(%)
1	경도·경기도	9	295	88	392(14.55)
2	충청도	5	247	58	310(11.51)
3	경상도	5	415	98	518(19.23)
4	전라도	5	351	78	434(16.11)
5	강원도	5	161	40	206(7.65)
6	황해도	5	145	36	186(6.90)
7	함경도	5	207	52	264(9.80)
8	평안도	5	305	74	384(14.25)
계(%)	-	44(1.63)	2,126(78.92)	524(19.45)	2,694(100)

* 책 1(경도·경기도)의 서지·내표지·목차의 쪽수에는 '역자서문' 총 3쪽이 포함되어 있다. '원문'의 경우 번역서 1쪽당 '영인 형태 원문'이 2쪽씩 편집되어 있다. 단, 원문의 끝쪽에는 영인 형태 원문 1쪽이 편집된 경우도 있다. '그림 1'은 영인 형태 원문 1쪽의 사례이다.

고(권 26)를 비롯하여 번역에서 제외된 정리고(권 27~28)·역대지(권 29~32) 부분의 역문·원문은 수록되어 있지 않다.

역서『대동지지』총 8책의 쪽수는 총 2,694쪽에 이르는 데, 우선, 역서『대동지지』총 8책의 쪽수 구성을 책(도·도〔都·道〕)별로 보면, 책 3(경상도)이 518쪽(19.23%)으로 가장 많고, 책 4(전라도)가 434쪽(16.11%)으로 두 번째로 많고, 그리고 책 6(황해도)이 186쪽(6.90%)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역서『대동지지』총 8책의 쪽수 구성을 서지·내표지·목차를 제외한 역문·원문에 한정해서 책(도·도)별로 보면, 전체적으로는 역문 2,126쪽(78.92%) 및 원문 524쪽(19.45%)으로 역문이 원문의 거의 4배에 이르는 가운데 책 3(경상도)이 역문 415쪽 및 원문 98쪽으로 가장 많고, 책 4(전라도)가 역문 351쪽 및 원문 78쪽으로 두 번째로 많고, 그리고 책 6(황해도)이 역문 145쪽 및 원문 36쪽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역서『대동지지』의 의의

조선시대의 주요 전국지리지인 『신증동국여지승람』·『여지도서』·『대동지지』 중 『신증동국여지승람』·『여지도서』는 진작에 완역된 바 있으나, 『대동지지』는 2000년대 중반까지도 ‘부분적 번역’만 이루어진 상태였다.

부연하면,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경우 대표적으로 1969~1970년에 『재단법인 민족문화추진회』에 의해서 ‘경도’, ‘한성부·개성부’ 및 ‘8도의 대도호부(大都護府)·도호부·목·군·현’에 관한 원본 총 25책 55권과 비교편 동국여지비고 총 2권 전체가 색인본 1집을 포함하여 총 7집(고전국역총서 40~46)으로 번역되고 각 권에 원본영인문이 첨부되어 『신증동국여지승람』으로 간행되었는데, 초판 이래 재판권을 거쳐 중간(重刊)된 바 있다. 『여지도서』의 경우 대표적으로 2009년에 문용식에 의해서 295개의 군현읍지(郡縣邑誌), 17개의 영지(營誌) 및 1개의 진지(鎭誌)로 구성된 313개 지리지 전체가 색인 CD-Rom 1매를 별첨으로 하여 총 50권(전주대학교 고전국역총서 1)으로 번역되고 각 권에 원본영인문이 첨부되어 『여지도서』로 간행되었다.

『대동지지』의 경우 2000년대 중반에 들어서 번역서로 『역주 대동지지: 1. 경도·한성부·경기도』(임승표 역주, 2004)·『역주 대동지지: 직산현·목천현·천안군 편』(백승

명 역주, 2006) 등이 간행된 바 있으나, 이들은 『대동지지』의 부분적 번역서여서 조선 후기 전국의 지리적 상황, 사회·문화적 사정 등을 온전히 파악하는데 여전히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또한, 『대동지지』의 경우 번역서 간행에 앞서 1970~1980년대에 영인본·활자본이 간행된 바 있는데, 영인본으로는 『대동지지』(한양대학교 부설 국학연구원, 1974, 초판)·『대동지지』(한양대학교 부설 국학연구원, 1976, 재판)¹⁰⁾가 있고, 그리고 활자본으로는 『대동지지: 상』(충남대학교 부설 백제연구소, 1982a)·『대동지지: 하』(충남대학교 부설 백제연구소, 1982b)¹¹⁾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동지지』 영인본·활자본은 간행부수가 제한적이었고, 극소수 전문가들 이외엔 내용 파악이 어려운 상태였다.

위와 같이 『신증동국여지승람』·『여지도서』는 진작에 완역본이 간행된 바 있으나, 『대동지지』는 영인본·활자본 및 부분적 번역본만 간행된 상황에서 2023년에 이상태 등에 의해 역서『대동지지』가 간행됨으로써 조선시대의 주요 전국지리지가 대부분 번역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역서『대동지지』간행은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IV. 요약 및 제언

『대동지지』는 김정호가 <대동여지도>에 맞춰 편찬한 지리지이면서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내용을 기본으로 삼고 『동여도지』·『여도비지』를 참고하여 죽을 때까지 편찬한 생애 네 번째 전국지리지로, 19세기 조선 전국의 군현 사정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지리지이다(김정호, 발행년 불명, 이상태 등 역, 2023: 제1책 역사서문 7·뒤표지). 이러한 『대동지지』가 2023년에 이상태 등에 의해 역서『대동지지』로 간행된 것은 한국 사학계는 물론 한국 지리학계의 경사이다.

역서『대동지지』의 경우 『대동지지』의 핵심부이면서 방대한 분량의 ‘경도·8도’(권 1~24)와 같은 지역별 지지는 전부 번역되어 있는 가운데 적은 분량이지만 정리고(권 27~28)·역대지(권 29~32)와 같은 주제별 지리는 번역되어 있지 않은바, 차후 추가로 번역되길 바란다. 또한, 『대동지지』에서 현재 낙질 상태인 산수고(권 25)·변방고(권 26)도 속히 발견되고 번역되어 『대동지지』전체가 완역되기를 기대한다. 이외에도, 차후의 『대동지지』 추가 번역

에서 역대지에 수록되어 있는 구주총도·오도양계전도와 그들의 개별도들이 전부 원본대로 수록되길 바란다.

끝으로, 역시『대동지지』간행을 계기로 한국 지리학계에서 김정호와 그가 저작한 지도·지지에 관한 연구가 더욱 증대되길 바란다.

註

- 1) 「대동지지」는 『대동지지(大東地志)』(원전(原典))의 ‘국문(國文) 번역서’를 지칭한다.
- 2) 역자(譯者) 8명은 본문에서는 ‘이상태 등’으로 칭한다.
- 3) 이상태(李相泰)는 자신의 최근 저술 「김정호 연구」(2021:122-123)에서 몇 가지 근거를 들어 김정호의 생몰시기를 ‘1803년 출생, 1868년 사망’으로 추정하고 있다.
- 4) 지리지(地理志)는 지지(地志) 또는 지지(地誌)라 부른다(양보경, 2011:291). 본 고에서는 지지(地志)를 비롯한 지지(地誌) 및 지리지 3개 용어를 내용이나 인용문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사용한다.
- 5) 해당 내용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신증동국여지승람”,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33401>.
- 6) 『여지도서』는 영조 재위시기인 1757~1765년에 왕명(王命)으로 295개 읍지, 17개 영지, 1개 진지 등 313개 지지를 모아 55책으로 성책(成冊)한 필사본의 ‘전국지방지’로, 편찬된 지 270여 년이 지난 『신증동국여지승람』을 개수·속성한 것인데, 이 과정에서 기존 항목에 방리(坊里)·제언(堤堰)·도로(道路)·전결(田結)·부세(賦稅)·군병(軍兵) 등의 항목을 첨가하고, 읍지마다 거리와 방위 등이 정확히 기록된 대축척지도를 첨부하여 ‘지도’와 ‘읍지’를 밀접하게 결부시키고, 면·리 또는 읍별로 가호수(家戶數)와 남녀 인구수를 상세하게 기재한 점이 특징이다. 『여지도서』는 전국에 걸쳐 동일시기에 작성된 읍지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18세기 중엽 지방사회를 전국적으로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여지도서”,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36512>). ‘여지도서’라는 명칭에서 ‘여지도’는 각 읍의 지도를 의미하고, ‘서’는 각 읍지를 의미하므로 ‘여지도서’는 ‘읍지에 지도가

붙은 전국지도서(全國地圖書)’를 의미한다(노도양, 1980:102).

- 7)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편찬한 것이 『대동지지』”라는 점은, 이병도(李丙燾, 1896~1989)가 1969년에 『신증동국여지승람』 국역본을 간행하면서 국역과정에서 “근세여지학(近世輿地學)의 대가인 고산자 김정호가 편찬한 『대동지지』를 참고하고”라고 밝힌 데서도 알 수 있다(재단법인 민족문화추진회, 1969:제1집 신증동국여지승람해설5).
- 8)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 소장한 『대동지지』의 분류기호는 ‘古4790-37-v.1-15/ 국립중앙도서관’이다.
- 9) 이상태는 역시『대동지지』간행의 주도 인물로, 국사편찬위원회 연구편찬실장·고증세사실장·사료조사실장, 국가지명위원회·문화재위원회 위원, 동경대학교 교환교수·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동해연구회·독도학회 부회장, 한국고지도연구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는 한국영토학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그간 한국 고지도·지지류 및 영토·독도·동해 분야에서 「한국 고지도 발달사」(1999), 「사료가 증명하는 독도는 한국땅」(2007) 등을 저술하고 80여편의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이상태는 ‘김정호와 그의 지도·지지’에 관한 연구에서 독보적 연구성과를 내서 그가 2021년 간행한 「김정호 연구」는 ‘2022년도 대한민국의학원 선정 교육부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된 바 있다.
- 10) 『대동지지』 초판(1974)·재판(1976) 모두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 원본의 영인본으로, 분량은 초판·재판이 동일하게 총 639쪽이다.
- 11) 『대동지지』 상(1982a)·하(1982b) 모두 주로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이 소장한 사본을 저본으로 한 활자본으로, 분량은 상 540쪽, 하 495쪽, 총 1,035쪽이다.

참고문헌

- 김정호, 발행년 불명, 『대동지지』(이상태·고혜령·김용곤·이영춘·김현영·박한남·고성훈·류주희 역, 2023, 『대동지지』, 서울: 경인문화사).
- 노도양, 1980, “3. 한국의 지지편찬사”, 대한지리학회 지지편찬위원회 편, 『한국지지: 총론』, 서울: 건설부 국립

- 지리원, 77-107.
- 문용식 역주, 2009, 『여지도서: 제1~50권』, 전주대학교 고전국역총서 1, 전주: 디자인하름.
- 백승명 역주, 2006, 『역주 대동지지: 직산현·목천현·천안군 편』, 천안: 성환문화원.
- 양보경, 2011, “제6장 지역정보의 보고, 지리지,”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엮음·이준선 외 지음, 『한국역사지리』, 푸른길학술 008, 서울: 푸른길, 289-335.
- 이상태, 2021, 『김정호 연구』, 서울: 경인문화사.
- 임승표 역주, 2004, 『역주 대동지지: 1. 경도·한성부·경기도』, 서울: 이회문화사.
- 재단법인 민족문화추진회, 1969, 『신증동국여지승람: 제1~4집』, 고전국역총서 40~43, 초판, 서울: 민족문화문고간행회.
- 재단법인 민족문화추진회, 1970, 『신증동국여지승람: 제5~7집』, 고전국역총서 44~46, 초판, 서울: 민족문화문고간행회.
- 충남대학교 부설 백제연구소, 1982a, 『대동지지: 상』, 대전: 농경출판사.
- 충남대학교 부설 백제연구소, 1982b, 『대동지지: 하』, 대전: 농경출판사.
- 한양대학교 부설 국학연구원, 1974, 『대동지지』, 초판, 한국고전씨리즈, 서울: 대제각.
- 한양대학교 부설 국학연구원, 1976, 『대동지지』, 재판, 한국고전씨리즈, 서울: 아세아문화사.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